“코로나 완전히 해방…세계여행 다니고 싶어요”

광주 시민들 일상 회복 기대감
의료진들 “고단했던 기억 생생”
일부 ‘회식 문화 부활’ 우려도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속에 갇힌 기분이었는데 꿈에 그리던 코로나19 종식이 코앞이라니 실감이 나지 않아요.”

정부가 11일 3년 4개월 만에 ‘코로나19 비상사태 종식’을 선언하면서 광주지역 시민들은 “감염병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됐다”며 홀가분해 했다.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와 실·내외 마스크 착용으로 답답했던 일상을 벗어던지고 이제는 코로나19가 없던 4년 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다며 들뜬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남긴 유산인 ‘마스크’ 착용은 또다른 감염병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전했고, 일부 직장인들은 ‘회식 문화 부활’을 우려하기도 했다.

대학생 박 모씨(21)는 “지난 2년간 코로나19 때문에 자유로운 대학 생활을 제대로 누리지 못했다”며 “완전히 종식되고 나면 하고 싶었던 것이 너무 많아 어떤 것부터 먼저 해야할지 모르겠다. 코로나 감염에 대한 걱정 없이 세계여행도 다니고 MT나 동아리 활동 등 친구들과 마음껏 놀러다니고 싶다”고 기뻐했다.

광주의 한 선별진료소에서 근무한 정 모씨(26·여)는 “작년까지만 해도 하루에 1,000명 이상 방문할 정도로 코로나 사태가 심각했다. 의료진은 적은데 많은 환자를 감당해야 해서 힘들 때가 있었다”며 “환자분들도 코로나로 인해 진료 과정에 불편함이 많았는데 머지 않아 정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생긴다”고 미소지었다.

일부 시민들은 ‘실감이 나지 않는다’며 기대감을 드러내는 한편 변이 바이러스 출현에 대한 불안함을 드러내기도 했다.

7년차 간호사 이 모씨(30·여)는 “2020년 8월 의료지원 요청으로 코로나19 업무를 도맡았다. 이전에는 질병에만 집중해서 진료했는데 코로나 사태 이후에는 질병 뿐만 아니라 코로나 감염에 대한 가능성까지도 진료 범위를 확장해야 했기 때문에 의료진도 환자들도 피로도가 높았다”며 “계속해서 변이 바이러스가 출현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기대보다도 불안감이 앞선다”고 말했다.

운암동에서 자영업을 운영하는 박 모씨(42·여)는 “거리두기 해제는 예전부터 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손님이 뚝 끊기고 경기 침체도 엎친데 덮쳐 여전히 매출 회복은 안되고 있다”며 “영업시간과 인원수를 통제하는 거리두기는 자영업자한테 치명적이었다. 전염병이 다시 또 유행하지 않길 바랄 뿐이다”고 말했다.

또 일부 직장인들은 회식 문화가 부활하거나 코로나에 걸려도 눈치가 보여 병가를 쓰지 못할 경우를 우려하기도 했다.

직장인 박 모씨(34)는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이후부터 회식 자리가 늘고 있다”면서 “그동안 코로나19 때문인지 직장 상사의 눈치를 보지 않고 회식 참여 여부를 밝힐 수 있었는데 이제는 자율이 아닌 강제로 회식에 참여해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코로나에 확진된 경험이 없다는 직장인 김 모씨(29)는 “3년 동안 코로나에 한 번도 감염되지 않았던 친한 동료가 지난주에 확진돼 일주일간 격리했는데 3~4일간 열이 오르고 아파서 고생했다고 하더라”며 “이제는 코로나에 걸려 아프더라도 직장에 병가 신청하기가 눈치보일 것 같다”고 우려했다. /김혜린 기자

‘빨래야, 세탁가자!’ 11일 광주시 북구 두암3동 행정복지센터 쌈지주차장에서 열린 ‘빨래야, 세탁가자!’ 행사에서 동 직원들과 주민자치회, 새마을부녀회, 적십자 등 봉사자들이 관내 취약계층 세대에서 수거한 이불을 세탁한 후 건조하고 있다. /김태규 기자

우크라 피난민들, 5·18 추모행사 동참한다

민주평화대행진·전야제 등

광주 고려인마을에 안착한 우크라이나 피란민이 5·18 민주화운동 43주년 추모 행동에 동참한다.

11일 광주 고려인마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 40여명은 오는 17일 광주 동구 금남로와 옛 전남도청 일원에서 열리는 민주평화대행진에 참가한다.

민주평화대행진에 참여하는 전쟁 난민에는 초등학생 등 어린이들도 참여한다.

이들은 5·18 43주년 기념 펼침막을 손에 들고 행진 대열과 함께 금남로 특설무대까지 이동해 전야제까지 자리를 지킬 예정이다.

사흘 뒤인 20일에는 광주 광산구 월곡동 홍범도공원에서 고려인마을이 주최하는 5·18 추모행사에 참여한다.

고려인마을 대안학교인 새날학교의 재학생을 중심으로 청소년들이 ‘님을 위한 행진곡’을 주제로 약 5분 짜리 공연도 펼친다.

세계고려인단체총연합회 출범식 참가를 위해 광주에 오는 키르기스스탄 고려인 예술단 ‘만남’이 피란민 청소년들과 합동으로 공연한다.

공연단은 ‘님을 위한 행진곡’ 서사에 맞춰 5·18 역사의 주요 장면과 광주정신 등을 표현할 계획이다. /민찬기 기자

‘선거법 위반’ 허석 전 순천시장 벌금 300만원

변호사비 대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석 전 순천시장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허정훈 재판장)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허 전 시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고 그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5년간 제한된다.

허 전 시장은 시장 당선 전인 지역신문 대표 시절 국가 보조금을 유용한 혐의로 재판받는 과정에서 함께 일했던 신문사 관계자들의 변호사비를 대신 내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순천시장으로서 누구보다 선거법 준수에 솔선수범해야 함에도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재산상의 이익은 구체적인 가액을 산정할 수 없더라도 통상적인 변호사 수임료에 비춰 그 이익이 결코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최환준 기자

전국 곳곳서 ‘오월서가’ 운영

서구·북구청·전남대도서관 등

5·18기념재단은 5·18민주화운동 43주년을 맞아 공공기관 및 도서관과 함께 오월서가를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재단은 더 많은 시민들이 오월의 가치를 일상에서 만날 수 있도록 올해 2월부터 공공기관 등과 프로그램 운영을 협의해 왔다.

광주 서구청은 지역 상록도서관에서 3월부터 오월서가를 운영해왔으며, 5월 행사주간을 맞아 서구청 로비에 공간을 마련해 5·18도서 및 교육자료를 전시하고 있다.

북구청은 전남대 정문 인근 ‘북구5·18기억공간’ 내에 4월부터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광산구의 ‘원당산청소년문화의집’과 ‘광산구도시재생지원센터’는 지난 3월부터 기관 내에 공간을 마련해 서가를 운영했으며, 방문하는 청소년과 시민에게 5·18자료를 홍보·보급하고 있다.

또한 민주인권특화 도서관인 서울시 소재 김근태기념도서관은 5월 한 달간 오월서가 특별전시를 진행하며, 이후에는 상시 프로그램으로 운영한다.

강원도 춘천의 지역문화공간인 커먼즈필드에서도 이달부터 7월까지 전시를 진행한다.

전남대도서관은 도서관 소장 5·18도서와 재단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다음달까지 도서관 내 정보마루에 전시해 대학생들이 5·18민주화운동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오월서가’는 재단이 5·18 당시 항쟁지도부의 주요한 거점이었던 ‘녹두서점’을 모티프로 오월의 가치를 일상생활 공간 속에서 함께 구현하고자 전국 동네책방 및 기관과 함께 2021년부터 추진해오고 있는 사업이다.

오월서가는 전국 57곳의 책방과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다. /민찬기 기자